

경제포커스

인쇄업 인적자원개발

윤 영 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시 인쇄·출판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및 활성화 방안

박 희 석(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홍 나 미(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서울시 인쇄·출판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및 활성화 방안

박희석 · 부연구위원*

홍나미 · 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hspark@sdi.re.kr

들어가는 말

- 인쇄·출판 산업¹⁾은 국제금융 및 사업서비스, IT, 문화, 디지털콘텐츠산업 등과 전후방연계를 형성하면서 서울시 도심지역에 집적하고 있는 도심형 산업임
 - 현재 을지로345가동을 중심으로 인쇄·출판관련 산업이 집적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나, 주변 환경 및 사업여건이 열악하여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 향후 지속적인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는 인쇄·출판 관련 산업을 고도화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캔사스주립대(Kansas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한양대 경제학 석·학사
- 포스코경영연구소(책임연구원), 고려증권 부설/고려종합경제연구소(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R.A)
- 부동산 경기변동이 서울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12)등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서울대학교 공학석사(도시설계전공)
- 산업개발진흥지구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 서울시 4대 전략산업 현황 및 육성방안(서울경제 브리프 제52호, 2005.4)

1) 인쇄·출판 산업이란 종이나 그 밖의 물질에 정밀한 화상을 옮겨 인쇄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출판업(KSIC 22110, 22121, 22122, 22123, 22139, 22190), 인쇄업(KSIC 22211, 22212, 22219, 22221, 22222, 22229), 인쇄관련 산업(KSIC 51463, 52621, 52892, 71302)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산업 특성상 타산업의 지원산업이면서 동종업체들이 공간적으로 집적되는 경향이 강함

- 인쇄관련 산업이 공간적으로 도심지역에 집적하는 이유는 공간적 경쟁력 및 타산업과의 폭넓은 연계에 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따라서 도심지역의 인쇄출판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산업연계특성을 파악하고, 공간적 집적 및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새롭게 조성된 청계천 주변의 변화와 함께 인쇄출판 산업 집적지의 물리환경 정비를 통해 인쇄산업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글에서는 이러한 취지하에 서울시 인쇄출판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다른 산업과의 연계관계 및 공간적인 클러스터를 살펴보고자 함
- 또한, 도심지역의 인쇄출판관련 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인쇄출판관련 산업 집적지의 경영환경 및 물리적 환경 등을 파악하고, 향후 인쇄출판 관련 산업의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모색해보았음

서울시 인쇄출판 산업의 현황

- 서울시에서 인쇄출판 산업의 세부업종별 추이
- 서울시 인쇄출판 산업은 2003년 말 기준 총 17,172개 사업체, 112,141명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 전체 산업의 2.29%, 2.96%의 비중을 차지함(<표 1> 참조)
 - 각 세부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체수는 인쇄업의 비율이 47.7%로 가장 높고, 종사자 비율도 30.7%로 높은 편이며, 종사자수는 출판업과 인쇄업, 관련 유통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평균 6.5명으로 소규모 사업체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난 10년간의 인쇄출판 산업의 산업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서울에서 차지하는 산업비중이 증가하나 이후 IMF를 겪으면서 급격히 감소하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산업비중이 낮아지고 있음(<표 2> 참조)

〈표 1〉 인쇄·출판업의 세부업종별 현황

구분	사업체		종사자		서울시 산업비중(%)		사업체당 종사자(명)
	개	%	명	%	사업체	종사자	
인쇄·출판업 전체	17,172	100.0	112,141	100.0	2.29	2.96	6.5
인쇄업	8,192	47.7	34,377	30.7	1.09	0.91	4.2
유통업	3,751	21.8	18,784	16.8	0.50	0.50	5.0
출판업	2,924	17.0	47,521	42.4	0.39	1.25	16.3
소매업	1,590	9.3	6,105	5.4	0.21	0.16	3.8
도매업	715	4.2	5,354	4.8	0.10	0.14	7.5

자료 :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자료, 2003

〈표 2〉 서울시 인쇄·출판 산업의 산업비중 변화

기준년도	사업체(% , 개)	종사자(% , 명)	증가율(%)	
			사업체	종사자
1994	2.70(17,689)	3.41(123,174)	-	-
1997	2.89(20,017)	3.63(136,432)	12.83	10.81
2000	2.49(17,916)	3.20(114,394)	-10.32	-16.09
2003	2.29(17,151)	2.96(112,241)	-4.22	-1.95

자료 :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자료, 2003

○ 서울시 인쇄·출판 산업의 지역별 분포현황

- 인쇄·출판업은 중구(36.9%), 종로구(6.2%), 마포구(5.2%), 강남구(5.0%) 순으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체가 집적되어 있음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출판업의 경우 마포구(16.3%), 종로구(13.9%), 중구(13.2%), 강남구(9.6%), 서초구(6.9%), 영등포구(5.7%) 등 도심지역과 여의도, 강남지역 등 업무중심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 인쇄업의 경우는 중구(69.7%)에 거의 대부분의 사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중구지역을 중심으로 인쇄산업 특화지역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인쇄·출판 도소매업은 종로구(8.7%, 19.3%), 중구(5.7%, 11.2%), 강남구(5.3%, 8.7%) 지역을 위주로 밀집되어 분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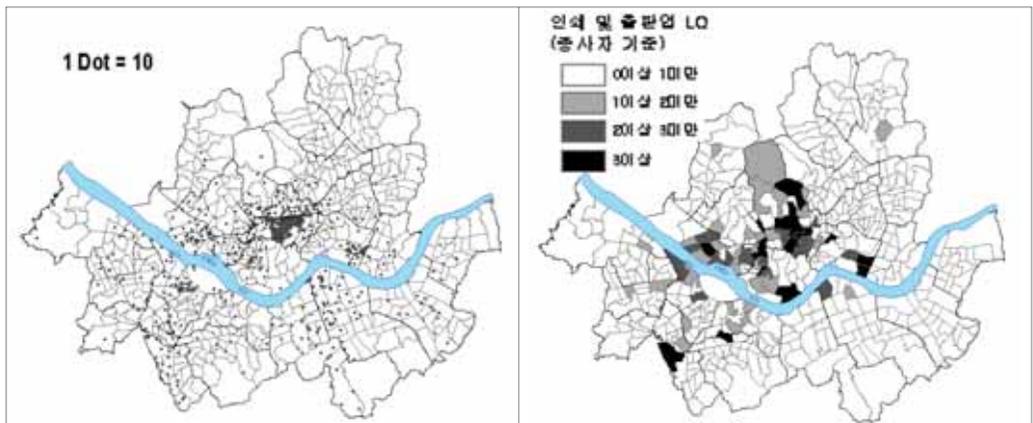
○ 인쇄·출판 산업 집적지역

-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자료(2003년 기준)를 이용, 행정동별 사업체 및 종사자의 절대적인 규모와 상대적인 집중도인 IQ를 이용하여 인쇄·출판 산업 집적지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표 3〉 참조)

- 도소매업을 제외한 인쇄출판 산업은 도심권인 을지로345가동, 필동, 광희동, 종로1234가동과 준공업지역 및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성수2가3동에 주로 밀집되어 있으며, 특히 을지로345가동은 특수인쇄가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음

<표 3> 인쇄·출판 산업 집적지역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LQ				집적지역
	행정동	개	행정동	명	사업체수 기준		종사자수 기준		
인 쇄 · 출 판	을지로345가동	2,452	종로1234가동	9,172	필동	20.11	공덕1동	13.88	을지로345가동 종로1234가동 필동 광희동 성수동
	광희동	2,034	을지로345가동	7,297	을지로345가동	15.64	필동	11.31	
	필동	822	광희동	6,641	광희동	9.77	을지로345가동	9.43	
	명동	540	필동	5,222	장충동	6.36	광희동	7.18	
	종로1234가동	248	명동	3,796	원효로1동	5.67	봉천1동	5.75	
	성수2가3동	225	가산동	3,120	성수2가3동	4.55	교남동	4.50	
	영등포2동	215	성수2가3동	2,852	명동	4.27	혜화동	4.36	
	서교동	145	소공동	2,593	창신1동	3.63	종로1234가동	4.28	
	신사동	128	서교동	1,314	신수동	3.62	성수2가3동	4.26	
	창신1동	117	공덕1동	1,169	교남동	3.56	원효로1동	3.97	



<그림 1> 인쇄·출판 산업 사업체 분포 및 지역별 LQ

인쇄출판 산업의 산업연계분석 및 클러스터 도출

- 산업연관표(2000)의 투입산출표²⁾를 이용하여 인쇄출판 산업의 전·후방산업연계분석³⁾을 실시하고, 연계산업을 포함한 산업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후방연계분석결과
 - 후방연계 분석결과, 인쇄와 출판은 유사한 투입구조를 보이며, 기록매체출판 및 복제업은 다소 차이를 보임
 -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인쇄 및 출판업은 인쇄용지 부문과 가장 강한 후방연계를 보이며, 자체적인 연계 경향도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기록매체출판 및 복제업의 경우는 전자기기용기록매체업과 연극, 음악 및 기타예술분야 등과 강한 후방연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록매체출판 및 복제업이 종이를 이용하지 않은 매체인 CD, DVD등의 출판 및 복제와 관련된 업종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인쇄출판업의 경우 관련 업종간의 전문화로 기타 산업간 후방연계의 범위가 좁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표 4> 인쇄출판 산업의 후방연계분석 결과

구분	출판	인쇄	기록매체출판및복제
강한연계	인쇄용지(11.556)	인쇄용지(11.983)	전자기기용기록매체(9.600)
	인쇄(5.386)	인쇄(6.686)	연극, 음악및기타예술(6.817)
	광고(2.728)		산업용플라스틱제품(3.787)
	출판(2.330)		부동산임대(3.720)
연계	기타원지및판지(1.547)	잉크(1.175)	인쇄(2.430)
	연극, 음악및기타예술(1.530)	도매(1.085)	합성수지(1.955)
	잉크(1.396)		가계외소비지출(1.480)
	부동산임대(1.302)		광고(1.335)
	가계외소비지출(1.245)		집적회로(1.313)
	도매(1.175)		도매(1.264)
	기계장비및용품임대(1.118)		

주) 0안은 중간투입거래량의 Z-Score임

- 2) 산업부문간에 발생하는 거래의 집계표로서 기업 간 상호작용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전국단위의 집계자료로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 3) 산업간 연계관계는 후방연계와 전방연계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데, 후방연계라는 것은 어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산업부문과의 관계를 말하며, 전방연계라 하는 것은 어떤 재화를 주로 소비하는 산업부문과의 관계를 말함
본 글에서의 산업연계분석 개요는 다음과 같음. 우선 산업연관표 생산자 가격평가표의 기본부문표에서 출판, 인쇄, 기록매체출판 및 복제 등 3개의 부문들을 인쇄·출판 산업으로 상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음. 인쇄·출판의 경우 투입되는 사업 부문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적인 산업연계분석에서와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해 산업군을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3개의 하위 업종군에 대한 타 산업의 연계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된 중간투입거래량(각 인쇄·출판 부문에 대한 중간투입 거래량의 Z-Score)을 기준으로 연계산업을 추출하였으며, 투입금액이 0인 산업 부문은 연계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전방연계분석결과

- 전방연계의 경우 3차 산업 부문과의 다양한 연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광고, 금융, 도소매, 교육서비스, 연구개발,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인쇄출판부문의 생산품에 대한 중간수요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기록매체출판 및 복제업의 경우는 광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와 강한 전방연계관계를 이루고 있음

<표 5> 인쇄·출판 산업의 전방연계분석 결과

구분	출판	인쇄	기록매체출판및복제
강한연계	가계외소비지출(10.866)	인쇄(13.197)	광고(14.326)
	광고(8.213)	출판(9.029)	컴퓨터및주변기기(8.522)
	출판(7.097)	중앙은행 및	사무용품(4.859)
	소매(5.990)	은행예금취급기관(4.522)	출판(3.412)
	교육기관-산업(3.481)	사무용품(4.487)	영화(2.911)
	교육기관-국공립(3.354)	비은행예금취급기관(3.956)	가계외소비지출(2.592)
	정보제공서비스(3.347)	지방정부(3.281)	기타전자부품(2.409)
	기업내연구개발(3.156)	소매(2.834)	연극,음악및기타예술(2.146)
	문화서비스-국공립(2.623)	중앙정부(2.652)	중앙은행 및
	도매(2.422)	기타사회단체(2.002)	은행예금취급기관(2.050)
	지방정부(2.358)		
	중앙은행 및 은행예금취급기관(2.304)		
항공운송(2.149)			
연계	교육기관-사립(1.863)	의약품(1.918)	지방정부(1.993)
	기타사회단체(1.847)	교육기관-국공립(1.859)	중앙정부(1.981)
	기타사업서비스(1.845)	기타금융중개기관(1.679)	교육기관-사립(1.802)
	중앙정부(1.725)	기타공학관련서비스(1.387)	인쇄(1.754)
	신문(1.567)	교육기관-산업(1.292)	교육기관-산업(1.386)
	컴퓨터및주변기기(1.024)	신문(1.221)	기록매체출판및복제(1.336)
		전화(1.058)	음식점(1.192)

주) ()안은 중간수요거래량의 Z-Score임

○ 전·후방연계산업 종합

- 서울시 인쇄출판 산업은 인쇄용지, 전자기기용기록매체, 연극음악 및 기타예술 등을 중심으로 강한 후방연계 클러스터를 구성하며, 가계 외 소비지출, 광고, 출판, 인쇄, 컴퓨터 주변기기 등과 강한 전방연계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후방연계 클러스터의 경우 인쇄출판 제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방연계 클러스터의 경우는 매우 다양한 분야의 업종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 인쇄·출판 산업의 전·후방 연계의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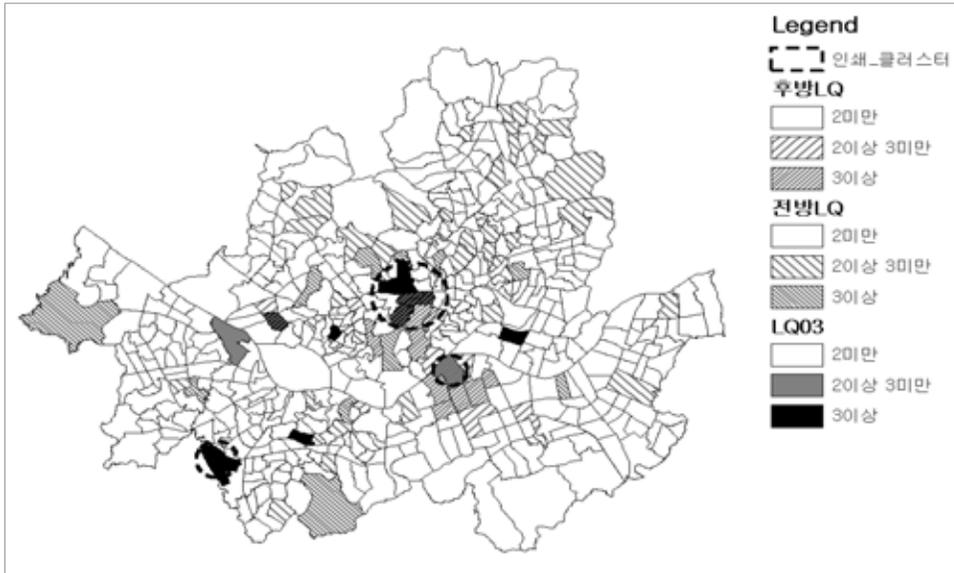
○ 전·후방연계산업을 고려한 인쇄출판 산업의 공간적 클러스터 도출

- 인쇄출판관련 산업의 고용자 LQ가 2이상인 지역 중, 고용자 수 상위 20분위 이내의 집적지역은 다음과 같음(<표 6> 참조)
- 인쇄출판 산업의 생산품이 투입되는 후방연계산업의 경우 신사동 일대와 도심부 지역인 광희동, 필동, 을지로 일대에 고용이 집중되어 있음
- 반면, 전방연계 클러스터의 경우는 매우 다양한 분야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나타나며, 인쇄출판 산업의 공간적 입지와 큰 상관이 없음
- 전·후방 연계를 고려하여 인쇄출판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도심부의 강력한 클러스터와 강남, 가산동, 성수동 지역의 클러스터가 나타남

〈표 6〉 인쇄·출판 산업의 집적지역

행정동	부문 고용자수	부문LQ	후방연계 고용자수	전방연계 고용자수	후방LQ	전방LQ
을지로345가동	7,246	(2) 10.759	(3) 960	2,344	(3) 4.388	0.430
종로1234가동	7,104	3.810	(5) 660	(1) 14,704	1.090	(3) 0.974
광희동	6,112	(3) 7.864	(2) 984	(3) 3,029	(5) 3.898	0.482
필동	4,350	(1) 10.942	(4) 927	(2) 4,308	(2) 7.179	(1) 1.339
가산동	3,118	4.245	80	(5) 2,807	0.335	0.472
성수2가3동	2,823	(5) 4.842	18	862	0.095	0.183
서교동	1,176	3.613	445	1,788	(4) 4.208	(5) 0.679
신사동	1,056	2.842	(1) 1,060	(4) 2,831	(1) 8.782	(4) 0.941
공덕2동	836	3.286	146	1,079	1.767	0.524
양평2동	659	2.673	13	981	0.162	0.492
봉천1동	659	(4) 6.554	5	806	0.153	(2) 0.990

주) ()안의 숫자는 순위를 나타냄



〈그림 3〉 전·후방 연계산업을 고려한 인쇄-출판 산업 클러스터

도심부 일대 인쇄출판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도심부 일대의 인쇄출판 산업 집적지역의 현황을 살펴보고, 동 지역 내 인쇄출판 관련 기업체 설문조사⁴⁾를 통하여 경영환경 및 입지환경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쇄출판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음
- 을지로 일대 등 도심지역은 인쇄관련 산업의 비중이 가장 큰 지역으로, 서울시 전체의 인쇄관련 업체 중 36.9%(종사자수 기준 25.6%)가 위치하고 있음
 - 도심지역의 사업체를 살펴본 결과, 종사자 수와 업체 수 모두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종사자 24%, 사업체 32%)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 지역의 특화산업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각 필지별로 인쇄출판 관련 업체의 종사자 분포를 살펴본 결과, 을지로를 포함한 남측지역(을지로34가동, 인현12가동, 저동 일대)을 중심으로 인쇄출판관련 업체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4) 총 설문부수는 221부로,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약 1,100개) 중 해당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업체를 추출하였으며, 각 동별 사업체 비율을 바탕으로 설문부수를 구성하였음. 을지로234가동(24.1%), 총무로345가동(21.3%), 필동123가동(16.8%), 인현12가동(23.6%) 일대의 사업체가 전체 설문업체의 85.8%에 해당됨

〈표 7〉 을지로 일대 대상지 사업체 분포 분석표

업종	종사자수	비율 (%)	업체수	비율 (%)	업체당평균 종사자수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 12,370	23.94	(1) 3,860	31.96	3.2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2) 8,595	16.64	(2) 2,768	22.92	3.11
사업지원 서비스업	(3) 5,036	9.75	(10) 111	0.92	45.3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 3,975	7.69	(3) 1,196	9.90	3.32
보험 및 연금업	(5) 3,131	6.06	24	0.20	130.46
숙박 및 음식점업	(6) 2,680	5.19	(4) 897	7.43	2.99
금융업	(7) 1,432	2.77	45	0.37	31.8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8) 1,358	2.63	69	0.57	19.68
소매업; 자동차 제외	(9) 1,302	2.52	(5) 550	4.55	2.3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 1,008	1.95	4	0.03	252.00
종합 건설업	850	1.65	14	0.12	60.7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804	1.56	(9) 171	1.42	4.70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735	1.42	(6) 452	3.74	1.63
부동산업	701	1.36	(8) 196	1.62	3.58
전문직별 공사업	600	1.16	77	0.64	7.79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544	1.05	(7) 232	1.92	2.34
통신업	529	1.02	43	0.36	12.30

자료 : 사업체기초통계조사자료, 2003

주) 0안의 숫자는 각 기준별 순위를 나타냄

- 을지로 일대의 인쇄출판부문 세부 업종별 비율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포함하는 을지로345가동과 광희동의 인쇄출판 산업 부문의 세세분류별 종사자수 변화를 분석함

〈표 8〉 을지로345가동 및 광희동의 인쇄출판부문 종사자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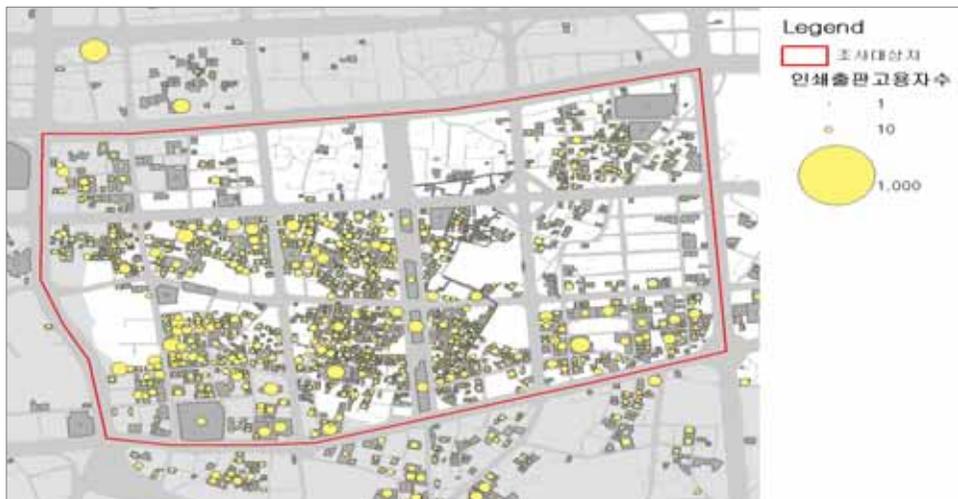
세세분류	종사자수	비율(%)	연평균증가율(%)	연평균증가율(%)	연평균증가율(%)
			1994-1998	1998-2003	1994-2003
기타 인쇄업	5,958	44.602	-4.36	-6.53	-5.57
경 인쇄업	2,591	19.397	-4.63	3.54	-0.17
제판 및 조판업	1,230	9.208	-1.51	-3.95	-2.87
기타 인쇄관련 산업	1,216	9.103	3.87	14.27	9.53
스크린 인쇄업	692	5.180	-5.57	6.38	0.89
제책업	619	4.634	10.53	1.45	5.39
서적 출판업	577	4.320	-17.54	15.89	-0.38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321	2.403	14.52	3.52	8.27
기타 출판업	146	1.093	-14.16	13.95	0.47
기록매체 복제업	0	0.000	-21.75	-100.0	-100.0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8	0.060	N/A	N/A	N/A
합계	13,358	100.0	-3.66	-1.44	-2.43

- 가장 많은 고용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은 기타 인쇄업 부문이며, 다음으로 경 인쇄업과 제판 및 조판업의 고용 비중이 높게 나타남

- 1990년대 이후 연평균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산업은 기타 인쇄관련산업, 출판관련업, 스크린 인쇄업 등으로 나타남
- 1994년, 1998년, 2003년도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각 기간별 고용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분석하면, 1994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 동안 기타 인쇄관련 산업과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의 고용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⁵⁾

○ 을지로 일대 인쇄출판 관련 업체 일반현황

- 1985년 이후 창업한 사업체가 전체의 87.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위치로의 이전년도 또한 90년대 중반 이후가 85%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즉, 1980년대부터 현재의 인쇄출판관련 산업집적지가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90년대 중반부터 집적화가 두드러졌음
- 기업체 규모의 경우, 종사자 10인 미만이 전체의 90.5%에 해당하며, 사업장 면적도 50평 미만이 89.2%를 차지하고 있어 영세한 규모임을 알 수 있으며, 사업장 소유형태는 90% 이상이 임대형으로 나타남
- 건축물 이용형태의 경우 공장상가공용 건물 38.9%, 상가전용 건물 32.6%, 공장전용 건물 23.5%, 공장주택공용 건물 5.0%로 나타남
- 주요 서비스로는 출판인쇄와 특수인쇄가 전체의 89.5%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수인쇄 및 광고기획 업종 또한 29.4%로 높게 나타남



<그림 4> 을지로 일대 인쇄·출판 고용자 분포

5) 1994년~1998년의 고용자 수 변화는 1997년 말의 외환위기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임

○ 경영여건

- 최근의 경영여건 변화에 대해서 대부분의 업체(77.4%)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좋아졌다고 답변한 업체는 4.5%에 불과함
- 경영악화의 원인으로서는 설문업체의 52%가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위축을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제품수요의 감소(21.1%), 인건비 상승(7.6%), 업체 간 경쟁심화(7.0%), 임대료 상승(5.8%)을 선택하여, 산업구조변화와 경기침체가 임대료나 인건비 상승보다 경영악화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됨
- 앞으로의 사업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답변이 대부분(67.4%)이며, 현재수준과 비슷하거나 앞으로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답변 27.6%에 그치고 있음

○ 입지여건

- 현 입지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 물리적인 입지환경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불만족으로 평가되어 환경개선사업이 시급함을 알 수 있음(<표 9> 참조)
- 특히 공장이나 사업장의 공급, 임대료, 물품운송, 주차공간 등 생산과 연결된 부분에 대한 평가가 낮게 측정되었으며, 오염방지시설, 근린편의시설의 추가적인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반면 주변지역 주민, 상인과의 마찰문제와 생산 및 경영환경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인력확보와 산업지원시설에 대해서는 다소 개선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표 10> 참조)

<표 9> 입지환경에 대한 만족도(비율, %)

내용	매우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보통 (3점)	만족 (4점)	매우만족 (5점)	5점 평균
공장이나 사업장을 구하기 쉽다	7.2	39.4	39.4	14.0	0.0	2.60
임대료 수준이 적절하다	38.9	46.6	12.7	1.8	0.0	1.77
도로가 넓어 물품운반이 수월하다	23.1	44.8	23.5	8.1	0.5	2.18
주차공간이 충분하다	43.0	45.2	10.0	1.8	0.0	1.71
공기가 맑고 조용하다	43.0	50.7	5.9	0.5	0.0	1.64
근린시설편의시설이 충분하다	39.4	38.9	19.5	2.3	0.0	1.85
주변지역 주민/상인과 마찰이 없다	2.7	10.4	44.8	38.0	4.1	3.30

BASE : 전체 응답자(221명)

- 사업장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81%가 이전의향이 없다고 응답함에 따라, 대상지역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인 개발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대안책의 하나로 아파트형공장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음⁶⁾
- 이전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 중 예상되는 이전지역으로는 90% 이상이 서울시 내 다른 지역이라고 응답하여, 인쇄출판관련 업체의 대다수가 서울시 내에 입지하고자 함
-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의 절반 이상(57.1%)이 이전사유 1순위로 높은 임대료를 꼽았으며, 그 뒤로 좁은 도로와 주차장 부족을 이전사유로 선택함

〈표 10〉 생산 및 경영환경에 대한 만족도(비율, %)

내용	매우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보통 (3점)	만족 (4점)	매우만족 (5점)	5점 평균
산업집적지로서 잘 알려져 있다	0.9	3.2	25.8	62.9	7.2	3.72
인력확보가 쉽다	5.0	26.2	44.3	23.5	0.9	2.89
거래업체·협력업체가 가까워 공동작업이 수월하다	0.5	11.8	43.4	40.3	4.1	3.36
동종업종이 몰려있어 지식정보를 얻기 쉽다	0.5	5.4	36.2	52.5	5.4	3.57
산업지원시설이 근처에 있어 편리하다	10.9	33.0	38.0	17.2	0.9	2.64

BASE : 전체 응답자(221명)

○ 산업환경 개선방안

-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상의 지원으로는 세제혜택(52%) 및 금융지원(24%)이 7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종합지원센터의 설립(12.7%) 등으로 나타나 금융지원, 인력알선 및 서비스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관련시설로는 대다수의 업체들이 저렴한 임대료의 사업장(81.9%)과 종합지원센터(10%)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지역의 임대료가 높고 사업장 및 공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산업공간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도심지역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1순위 사업으로 저렴한 임대료의 아파트형공장 설립 유도 및 지원(41.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6) 중구지역 내 인쇄관련 협회 인터뷰 결과, 을지로 지역 내 인쇄출판업체 및 관련업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협동화사업과 고가장비의 공동사용을 위해 성수동과 같은 아파트형공장 설립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높은 지가와 소유주 주변 업체와의 마찰 등에 의해 현실화가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남. 도심지역 내에서 아파트형공장 같은 일정규모 이상의 재정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자금, 행정 지원 등)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같은 개발업체가 함께 참여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함

- 주차장의 신설(27.1%), 노후 건축물의 개별적인 개보수 유도 및 지원(9.5%)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 노후하고 열악한 물리적 환경의 개선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대해서는 5.4%의 업체만이 우선추진사업으로 선택하였는데, 이는 을지로 일대 인쇄출판관련 업체들이 대부분 사업장을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 임시이전 사업장의 마련과 임대료의 상승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재개발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인쇄출판관련 업종의 이주 문제와 재정착 문제를 고려하고, 수복재개발, 아파트형공장과 같은 공동사업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함

도심부 일대 인쇄출판 산업의 활성화 방안

- 설문조사 결과, 도심지역의 인쇄출판관련 산업은 소규모 중소기업업체가 대다수로서 세금감면과 저리대출 등 금융조세관련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렴한 임대료의 사업장과 주차장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도심지역은 인쇄출판 산업뿐만 아니라 전·후방연계산업이 함께 집적된 산업클러스터로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계산업을 함께 고려한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체계적 산업클러스터 육성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산업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 전략산업의 육성 및 첨단산업의 유치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정하는 지역임
- 인쇄출판 산업은 서울시 전략산업은 아니지만, 서울시 지연산업 및 특화산업⁷⁾으로서 을지로 일대를 인쇄출판관련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기반시설의 우선공급,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 도시계획상의 행위제한 완화, 시세의 감면 등의 물리적, 제도적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음

7) 인쇄산업은 2001년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사·도지사가 추천한 10개 특화품목 중 서울시 특화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서울시 제1차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에서는 인쇄 및 출판업을 지연산업으로 선정하고 발전방향을 수립하였음

○ 물리적 환경의 개선

- 현재 을지로345가동을 비롯한 도심지역에 밀집해 있는 대부분의 인쇄관련 업체들은 중소규모의 업체들로서 사업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었으며, 도로가 좁고 주차장이 부족하여 물류환경이 열악한 상황임
-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일부 지역에서는 내부지역을 주차장으로 개발하여 이용하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일부 가로를 따라 개별 건물 및 점포단위의 개보수 활동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나, 블록단위의 체계적인 개선사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을지로 일대 인쇄출판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소방도로 개설, 공동주차장의 조성, 세가로 정비 등의 도시기반시설 정비작업을 통한 물리적 환경개선이 필요함
- 을지로 일대의 경우 도심지역으로서 필지 및 도로의 형태가 부정형인 곳이 많아 지구 경계의 명확한 규정이 어려우나, 필지단위의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인쇄산업 집적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계획상의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갱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지원시설의 공급

- 설문조사 결과, 저렴한 임대료의 사업장 공급과 종합지원센터 등 산업관련 지원시설의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을지로 일대는 도심지역으로서 지가 및 임대료 수준이 높기 때문에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대료를 저렴하게 용자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또는 지자체에서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아파트형공장의 경우 개별업체를 수직으로 집적화하여 기획-생산-유통-판매-전시-마케팅이 한 장소에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각 업체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공동화 작업이 가능하도록 유도함
- 또한 인쇄정보센터 등 을지로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다수의 인쇄관련 협의회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여 윈스톱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 금융 및 자금지원

- 설문결과,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행정지원으로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이 가장 높으며, 이는 인쇄출판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 및 자금지원체계의 확립이 필요함을 의미함
- 지원항목으로는 대상지 내에서 개별업체별로 노후 건축물을 개보수하거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저리용자대출 및 자금지원(민간에서 공동화사업을 추진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할 경우 건축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저리로 자금을 융자)이 이루어지도록 고려할 수 있으며, 인쇄출판업체들이 사용하는 고가의 인쇄용기기 구입에 대한 자금 지원이나 저리용자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네트워킹의 강화 및 산업혁신 창출

- 인쇄출판관련 산학연 컨소시엄 구축을 지원하여, 인쇄관련 상품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애로기술을 지원하도록 함
- 인쇄관련 학과 및 산업디자인관련 학과와의 연계를 모색하여 산학연계를 강화하고, 인쇄교육기관의 효율적 운용을 통하여 인쇄관련 전문인력개발을 지원하도록 함
- 인쇄출판 산업의 해외시장 확대 및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계 박람회에 대한 정보제공, 참가경비의 일부 지원 및 공동참가 유도, 자료구축 및 공유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함
- 작업공정의 혁신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혁신, 기계 및 장비의 공동구입 등을 유도 하도록 하며, 고가 장비구입에 대한 보조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산업개발진흥지구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서울특별시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서울특별시, 2004.7
 청계천 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도심부 관리 기본구상 산업부문, 서울특별시, 2003
 중구 도심형 산업의 활성화 및 정비계획, 서울특별시 중구, 1995